

# 사설

지난 2005년 양양산불로 낙산사가 소실되고 2008년에는 국보 1호 송례문까지 방화로 소실되자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었다. 이를 계기로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존하는 활동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런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1사1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펼쳐졌으며, 우리 지역의 기관이나 사회단체들도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보니 시나브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요즘은 '1사1문화재지킴이' 활동도 뜸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고성군이 6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청간정을 해체·복원하는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제대로된 안목 없이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

다는 소식이다. 청간정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관동팔경의 하나이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청간정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점은 고성군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

어주기에 충분하다. 매년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청간정을 관람하면서, 고성군의 관광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이번에 청간정 해체·복원공사를 진행하면서, 451년간 이어온 주춧돌 12개를 전면 해체하고

새로운 주춧돌을 세우려다 도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보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12개의 주춧돌 가운데 4개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12개 전체를 교체하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다고 한다.

이는 고성군이나 강원도나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주춧돌을 일부든 전부든 교체해 새로운 주춧돌을 세우겠다고 구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식이라면 차라리 최신식 공법을 이용해 철근콘크리트로 단단하고 휘황찬란하게 짓지 굳이 목재는 왜 살리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현재의 청간정은 1980년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전면 교체했기 때문에 목재는 겨우 30년의 역사만 갖고 있다. 웬만한 마을에 있는 팔각정 정도의 역사밖에 안된다. 따라서 청간정에 옛 주춧돌이 없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셈이다.

다행히 도 문화재위원들의 지적으로 주춧돌을 살렸지만, 고성군의 주먹구구식 문화재 관리 업무로 지역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 주먹구구식 문화재 관리 업무

실히 드러낸 일이 아닐 수 없다. 청간정이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451년간이나 이어온 주춧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간정은 6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최초의 원형은 거의 사라졌지만, 주춧돌만큼은 계속 보존되어 왔다.

## 금강칼럼

김종식  
객원논설위원



## 가정과 어린이는 힘의 원천

어린이사랑 가정사랑은 마음에서 솟아 나오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현대인이 지니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화수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정과 어린이는 힘의 원천, 기쁨과 사랑의 근원이다. 가정생활은 생활의 시작이요 영원한 안식처이다. 가족품안은 영원한 행복한 보루이다. 가족을 떠난 생활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이 끝없는 풍랑속의 항로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각양각색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모습을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人災(인재) 天災(천재)로 인한 끝없이 반복하며 공포와 위험, 위협은 바람 잠잠 날이 없다. 이 火魔(화마)의 불씨는 무엇일까? 권력이든가, 돈이든가, 명예이든가? 이는 욕심욕망에서 빚어진 산물이 아닌가. 이다.

사람은 끝없는 선한 생각, 끝없는 사랑, 끝없는 정,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 인간의 본성이라면 인제는 없어질 것이며 천재도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義(의)의 화수분은 권익분배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과의 和解(화해) 없으면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인간 사이에 和議(화의) 없이는 反目(반목)과 葛藤(갈등)으로 싸움이 되어 모두를 잃어버린 자멸뿐이라는 것.

이제 화목하여 모두 어린이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갈등의 화약고는 나의 마음속에 있으니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나와 함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길

밖에 없다할 것이다. 짧고 긴 삶 100년 목숨 거두어간다면, 오늘 내일 일 모른 인생, 운명대로 사는 일을 누가 탓하라? 쏟아지는 화수분의 쌀, 작은 볍을 그것마저 버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제는 자연이 꾸지 잘 차례, 다음은 사람 차례, 내 차례, 그리고 네 차례인 줄 모르는구나.

사람은 眞(진) 義(의) 力(역)을 지닌 良心(양심)적인 인격체이다. 일찍이 조상들은 참사랑과 의로움과 강건한 힘 그리고 선한 마음 격률을 물려받았다. 한편 선각자들 사랑의 화수분을 유업으로 남긴 말이 있다.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크다'는 말처럼 마음이 豐滿(풍만)하고 심성이 고우면, 마음도 몸도 가정도 세상도 일도 평온하며 매사가 和平(화평)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붓다(불교) 또는 예

수 그리스도(기독교) 한울님도(천도교) 한얼님도(대종교) 천신(민중)호칭 한다. 그리고 보통사람에게 내재하고 있는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가슴에 묻혀 살아 있다는 의미이다.

Jesus Christ는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뿐인 목숨을 인류의 죄 대신으로 내 놓았으니 이분의 사랑을 다시 새겨본다는 것과 유학의 설법은 인류를 선의를 믿음으로 보는 맹자의 금언은 높이 평가받아 교훈이 되었다.(성선설) 즉 아버지는 의로워야 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하며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한다는 가르침 이다. 이에 순자의 가르침의 순화설법은 순치이라 생각된다. 가정의 윤리와 도덕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하는 기초이자 뿌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 살 버릇 여든 살 간다는 格率(격률)은

조기에 사랑을 배워야 人生萬事(인생만사)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善(선)자체는 설득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악은 악에 부딪혀 결국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문제가 발생하며 혼설(선악이 함께 있다는 왕충의 논형)도 단면성이 있어 이론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본성은 무성설의 관점이라면 인간에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적 실재가 인성에 현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한 부분이라 본다는 것. 왜냐하면 인생이란 오고지고하는 삶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인재도 천재도 모두 경험 지식 이성 교육을 통하여 선을 최대화하고 악을 물리치려고 한다. 곧 무성에서 아름다운 길을 찾아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현대사회가 빚어놓은 화수분의 지혜이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하여 너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본적 생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지역 주민과 화친하여 적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또는 자기들 생각대로 처리하다가 狻(냥패)를 당한 경우가 있으니 역사적 전철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농축수산물엔 身土不二(신토불이) 전자 중공업 등은 세일스로, 한편으로 국제복지에 공헌하여야 하며 민족적 저력으로 만년을 극복하는 어렵고 험난한 FTA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국에서

현내면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사업이 지난 9일 열린 설명회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이날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수원 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즉각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지만,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주민설명회도 없이 추진하다가, 문제가 불거져 자 뒤늦게 설명회를 한 고성군의 행정 행위는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